

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최선

安彌瀟 보건사회부장관, 신년사에서 밝혀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 安彌瀟 보건사회부장관이 新年辭를 발표했다.

安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새해는, 국민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보사부도 올해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 불우이웃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安장관은 우선 식품·의약품에 관한 오염물 규제기준 강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강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수립 등을 올해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기공식을 가진 국립 암센터 건립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응급치료체계에도 내실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매듭짓고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를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재정의 계속 안정화 노력, 보험급여기간 연장, 고

다양한 건강자료 개발에 힘써달라

健協 崔振學회장, 시무식서 당부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지난 1월 4일 본부 및 서울지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崔회장은 이날, 『지난해에 건강관리사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새해에는 건강검사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의식 계몽과 과학적 건강자료 개발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 추진 등에 힘쓰고, 전국민 연금 기반 조성을 위해 농어민 연금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실질적 정책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이외에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노령수당 인상 등을 통해 불우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는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로이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나가자』고 당부했다.